

# 당산조선가



[해제]

형실록 이라는 표제(表題)와 함께 ‘갑술년 춘삼월 용궁면 무티실 이씨택(李氏宅)’이라는 필사본의 표지에 작자와 필사(筆寫) 시기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어와 따님요>의 말미에 “갑술 삼월 초”라는 제작 년대와 실제의 작자로 보이는 “이만의”와 “이소재”라는 인명이 나타나고 있다. 필사본 형실록 에는 <당산조선가>, <어와따님요>, <갑진록이라>, <우미인가라> 등 4편의 가사가 실려있는데, <당산조선가>와 <어와따님요>는 그 시대의 여식(女息)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실과 덕목을 노래한 규방가사이다. <갑진록이라>는 임진왜란 이후 13년째인 갑진년(1604)에 사명당(四溟堂)이 일본에 건너가 왜왕을 항복시키고 임진년의 원수를 갚고 돌아왔다는 내용의 우국가사로 보이는 작품이다. 그리고 <우미인가라>는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가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과의 해하성(垓下城) 전투에서 패하고 사면초가의 막다른 상황에 이르러 그가 사랑했던 연인 우미인(虞美人)과 이별하는 내용을 노래한 여성가사이다. <당산조선가>는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에 특히 결혼한 이후 친가(親家) 방문이나 벗들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인들의 입장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갑술년(甲戌年) 정월(正月) 이 소망을 이루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어와따님요> 역시 전반부에서는 여자의 본분을 충분히 익힌 다음 시집가서는 시부모 봉양 및 효우현심을 잘하여 며느리로서의 소임을 다하라는 친정어머니의 당부에 이어 후반부에서는 갑술년 정월 모처럼 친가를 방문하여 여러 친지 가족들과의 소풍 및 율놀이로 회포를 푸는데 이어 다시 시댁에 돌아가서는 남의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어머니의 각별한 당부로 끝을 맺고 있다. <갑진록이라>는 조선 중기의 승려로서 승병을 이끌고 왜군과 싸워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명당(四溟堂)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인데, 특히 그가 임진왜란 이후 13년째인 갑진년(1604)에 일본 사신으로 건너가 왜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우미인가라>는 무인년(戊寅年)에 지어진 작품으로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가 해하성(垓下城) 전투에서 한(漢)의 유방(劉邦)에게 패하고 난 다음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는 동시에 사랑했던 우미인(虞美人)과 이별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원문]

이미지

당산조선가

어어라 우리저류들아 이니말삼 드러보기  
 건어와 우리제족드라 이니말삼 드러보기  
 건곤이 기벽후 황화다시 말가서  
 인군조 나신후의 오른길을 마련할제  
 남여난 유별이요 봉우난 유신이라  
 야속홀스 조물이여 형제갓흔 우리동포  
 남여을 분간흔이 삼강을 건정한잇체  
 남조님아 선징현전 공부쓰지  
 충심보국 치국하여 요조속여 마즈다가  
 조송부모 효봉하고 여즈건문 범벅칠제  
 티님티스 쏜을바다 여즈ᄇ자 지사우지

송종지딤 다뵈을고 문조ᄇ소 불가하여  
 가소가탄 우리몸이 동서로 갈나안조  
 오미불망 가향싱각 피초의 일반이라  
 규중심쳐 우리몸이 임의로 활동못해  
 오늘날명 한이시딤 의수편전표 통기하여  
 상월가절 조흔씨의 깃차전차 놉피타고  
 우리가향 함고모혀 헤락담소 즐겨보식  
 구고의 흥원히혁 흥술활술 맛잡다가  
 괴령부모 부즐저울조 무이향산 도라오니  
 부모동기 환형반기고 숙당종반 원근친구  
 다모혀서 회회낙낙 즐거움은 쾌락하기  
 그지업다 어와 우리동기 각기모혀  
 말주로 살펴보니 산지각쳐 훗친붕우  
 일당의 다모혀서 회소담낙 설긴말이  
 히활한 우리형초 원가허 다모혀서  
 잇씨가 어나썸날 갑술정월 호절일식  
 추칠월 기망시의 이티혁의 노든명월  
 상원가절 망월구경 가자하니  
 이리조흔 무한흥치 악양누 놉흔누각  
 쥬비로 환담할제 전환이환 이시미의  
 엇지하여 회포홀고  
 번최만는 운포정실 미동의 김실이라  
 몇몇치 흥논말리 그러치 안니로다  
 문무형기 참말혀여 문물을 의질혀니  
 문무향의 하나말이 쓸딤업다 뇌형들이  
 문물축 만넌나고 사랑하난 말삼으로  
 지화심원 넌여쥬며 어그서 약속하니  
 여히들 소근딤로 음식츄손혀여 즐노라라  
 당부하니 황공감사 흥만은 오늘을선판하니  
 삼척여호 만은얼굴 노소장유 다모힐제  
 밥쌀이 약소하니 간간홀홀 회문되열  
 슷발최렴 하여보식 명찰기암 이설임시  
 딤답혀고 보살할미 염불하듯 여려쌀딤 썸을세어  
 그럭저럭 모흔쌀이 건포하신 덕턱이라  
 만만치가 무지혀고 쥬전혀여 어던턱미  
 조시아 넉넉혀니 유식쥬전 다되엇니  
 우리문중 기벽후의 문물되 처음이라  
 품미혀고 마흔음식 독식혀기 미안흔넌

식되니 간청하여 함귀가서 노조흔이  
 식되니 거동보소 문시썸정 덩퍼서고  
 저음구지 음골무슨 여인형의 형저무양  
 니홀지의 단장한다 저리한니 입시쫓차 잇슬손가  
 저리서 금당갓탄 인조비단 옷한벌을  
 농속의 무근옷슬 왓삭벗섯 치중이라  
 털쳐입고 나선모양 두눈으로 볼수업니  
 우리들리 당홍도량 나리쓰서 놀이보고  
 우리가 압흘셔셔 강당으로 인도하야  
 포포히진 다다른니 우리선조 별모압히  
 빅알흔니 엄숙하신 예의로셔 면면의지  
 청지하시난듯 빅례하고 물너와셔  
 편유치나 노조하니 운말인들 홀용한가  
 도을치며 풋되가고 한맛두뱃 더갈줄은  
 모라다가 모을하나 치고나이 당황정신  
 간곳업셔 압가든말 되의가고 되의가든말  
 압피션들 성부가 잇슬손가 승기한니  
 우리양인 진편인 이연사야 상기하리  
 양편의 손벽소리 산천을 이난듯  
 별모압히 철석친이 적벽강산 옴인가  
 초한시절 다시분듯 평지풍파 이러나니  
 인간장방 모힌지중 화중일지히 되소흐며  
 우슈울스 되슈되울 동접업시 혼조와셔  
 우혈업시 되론돌제 무이설 이른다니  
 심봉사 썽득어미 스는지동 험사한이  
 보난사람 처량하고 사실되 거동보소  
 아서풍정 억지춤이 절노날제 성풍되존  
 엄속하다 각식풍정 놓고본이 밤이의되 거의토다  
 오을 먹고나서 노든잔을 싯철닐제  
 어언간 니일낙새 산하는 동산명월 도다온이  
 포도쥬 체키먹고 동산 월출하야  
 명월시을 놉피불너 노지어 화답하니  
 춘풍도라 연화시의 잉성이 익익하고  
 강산봉첩 총류난듯 달을이고 조은니  
 동초의 빗친명월 우리씨의 왓도다  
 춘몽이 되여고나 다시곰 싱각한이  
 명명한 즉일사를 역력히 싱각한이  
 헛부도다 우리봉우 이리흔변 훗친후난

후일괴히 엇지할고 가소롭다 여자유히  
각쳐로 훗터온자 온면이 적조하고  
척서가 돈절하니 춘하춘동 사시절의  
미친회포 비승하며 봉우싱각 간절키난  
스시증 가절이라  
형제싱각 간절하고 모월지심 엇지할고  
슬푸고 굿부울스 우리이연 낙루무슈할세  
악슈연연 하난말리 다시곰 싱각하니  
청춘시절 조흔씨 부모문한 조조와셔  
이그회 잇지말고 춘풍호절 화전성회  
호흥명절 쏘다시 즐겨보시  
이만후고 굿치노라

어와싸님요

어와 싸님니요 우리말삼 드르보소  
천지가 초판한후 만물이 상겨스니  
영귀한기 사람이라 남여분간 달나  
오형성기 일반이요 부모의 곱흔자의  
남여분간 다를손가 은스근스 길너닐직  
명문가족 조흔갈별 여즈즉분 교훈하여  
숨오이탈 다다른이 곱여이야 면후괴소  
제근우지 하난몸이  
철니운 부모동기 일지감치 써쳐두고  
향손을 족별후고 여즈가의 익인치임  
싸다라운 심지조리 예말리도 잇대거든  
할물면 구이촌익 입문하여  
규중심쳐 곱히온즈 우리친가 법가유평  
효측하야 봉구고 스군즈와  
봉세자 적빈극 은분여의 큰일타  
금금히 조심하여 효우현심 극진흔중  
우리각각 여즈로서 타문의 입승하미  
만지마는 시집스리 어와동정 활발이

[현대역]

이미지

당산조선가

어어라 우리 제류(儕流)1들아 이내 말좀 들어보게  
 어어라 우리 제족(諸族)2들아 이내 말좀 들어보게  
 건곤(乾坤)3이 개벽(開闢)4후 황하(黃河) 다시 맑아  
 어진군자(君子) 나신 후에 옳은 길을 마련할제  
 남녀(男女)는 유별(有別)이요 봉우(朋友)는 유신(有信)이라  
 야속하다 조물(造物)5이여 형제(兄弟)같은 우리 동포  
 남녀(男女)를 구분하니 삼강(三綱)6을 건전(健全)7하고  
 남자(男子)들아 선정헌정(善正憲政)8 공부하여 지성(至誠)으로  
 보국치국(報國治國)9하여 요조속녀(窈窕淑女)10 맞아다가  
 조상부모 효봉(孝奉)하고 여자견문(見聞) 범백(凡百)11할제  
 태님태사 본(本)을 받아 여자(女子) 지사(知事)우지  
 삼종지도(三從之道)12 다배우고 문자(文字)소 불가(不可)하여  
 가소가탄(可笑可歎)13 우리 몸이 동서(東西)로 갈라져서  
 오매불망(寤寐不忘)14 고향생각 피차(彼此)에 일반이라  
 규중심처(閨中深處)15 우리 몸이 임의(任意)로 활동(活動) 못하고  
 오늘문명 한 있으되 우편전표(郵便傳票)16 통기(通寄)17하여  
 상원가절(上元佳節)18 좋은 때에 이차저차 높이 타고  
 우리 고향에 함께모여 해락담소(偕樂談笑)19 즐겨보세  
 구고(舅姑)20의 홍안(紅顏)21에 활기(活氣)를 담아다가  
 나이든 부모 부등겨울며 무이향산(無二鄉山)22 돌아오니  
 부모동기(父母同氣) 환형(環形)23반기고 당숙종반(堂叔宗班)24 원근친구  
 다모여서 희희낙락(喜喜樂樂)25 즐거움은 쾌락(快樂)하기  
 그지없다 어와 우리동기(同氣)26 각기모여  
 말주로 살펴보니 산지각처(山地各處) 흠어진봉우(朋友)  
 일당(一堂)27에 다모여서 회소담화(會所談話)28 성긴말이  
 해화(諧和)29한 우리 행차(行次) 먼길가도 다모이니  
 이때가 어느 땐가 갑술정월(甲戌正月) 호절(好節)30일세  
 추칠월(秋七月) 기망(既望)31시에 이태백(李太白)32이 놀던 명월(明月)  
 상원가절(上元佳節)33 달구경 가자하니  
 이리좋은 무한흥치(無限興致) 악양루(岳陽樓)34 높은누각  
 주야(晝夜)로 환담(歡談)할 때 전환이환 이시대에  
 어찌하여 회포(懷抱)하고  
 번뇌(煩惱)35많은 운포의 정실36 미동의 김실37이라

몇몇이 하는 말이 그럴지 아니하다  
 문물(文物)형이 참말하여 문물을 의질(疑質)38하니  
 문물(文物)형이 하는 말이 쓸데 업다 여행(旅行)들이  
 문물(文物)소격(疏隔)39 만나나 사랑하는 말씀으로  
 지화(指話)40심원 내어주며 여기서 약속하니  
 여자들 소근대며 음식추산하며 잘 노는구나  
 당부하니 황공감사(惶恐感謝) 많은 효(孝)를 전파하고  
 삼백여호 많은 얼굴 노소장유(老少長幼)41 모두 모여  
 밥쌀이 약소(弱小)하니 간간 훌훌(忽忽)42 황공(惶恐)하여  
 소밥43체면(體面) 하여보세 명찰기암(名刹奇庵)44 찾아서  
 대답하고 보살할매45 염불(念佛)하 듯 여러달 재 때를세어  
 그럭저럭 모은 쌀이 기포(飢飽)46하신 덕택(德澤)이라  
 만만하기 무지하고 주궤(主饋)47하여 얻은 백미(白米)  
 먹기에 넉넉하니 유식(遊食)주전48 다 되었네  
 우리 문중(門中) 개벽(開闢)49후에 문물(文物)이 처음이라  
 풍비(豐備)50하고 많은 음식 독식(獨食)하기 미안하다  
 새덕 네 간청(懇請)하여 함께 가서 놀자하니  
 새덕 네 거동(舉動)보소 문시검정 덮었으니  
 처음구지 음골무슨 여인모습 헛되구나  
 웃음지어 단장(丹粧)한다 저리한지 맴시좃아 있을손가  
 저래서 금낭(錦囊)51같은 인조비단(人造緋緞) 옷한벌을  
 장롱(櫥籠)속의 목은옷을 와삭벗어 치장(治裝)52이라  
 떨쳐입고 나선모양 두 눈으로 볼 수 없네  
 우리들이 당홍(唐紅)53들아 나리소서 찬찬이보고  
 우리가 앞을 서서 강당(講堂)으로 인도(引導)하여  
 포포해진 다다르니 우리 선조(先祖) 별외 앞에  
 배알(拜謁)54하니 엄숙하신 예의로서 면면의지  
 애지중지(愛之重之) 하시는 듯 배알하고 물러와서  
 편웃55이나 놀자하니 율말56인들 훌륭한가  
 도를치면 조금가고 한발 두발 더 갈 줄을 모르다가  
 모를 하나 치고나니 당황(唐慌)57정신 간곳없어  
 앞가던 말 도에가고 도에가던 말 앞에선들  
 승부(勝負)가 있을손가 승리(勝利)하니  
 우리 양인(兩人) 진편인 이 언사를 상기(想起)하리  
 양편의 손뻑소리 산천(山川)을 이는듯  
 별외 앞에 철석치니 적벽강산(赤壁江山) 이름인가  
 초한(楚漢)시절 다시 본 듯 평지풍파(平地風波) 일어나니  
 인간 장방(張房)58 모인 사람 일제히 대소(大笑)하며

우스울사 대수택은 동무없이 혼자 와서  
우인(友人)없이 되로돌제 무애설이 이른다네  
심봉사 뺨덕어미 사는지동 흡사(恰似)하니  
보는사람 처량(淒涼)하고 사실택 거동보소  
이런 풍정(風情)59 억지춤이 절노날제 성품으로  
엄숙하다 각각풍경 놓고 보니 밤이 되어 애달프다  
오늘 먹고 놀던 잔치를 끝낼 때에  
어언간 개인 날에 동산에 명월(明月)돋으니  
포도주 취하게 먹고 동산의 월출  
명월시(明月詩) 높이 불러 그제야 화답(和答)하니  
춘풍(春風)돌아 연화시(煙花詩)60에 매번처럼 애애(靄靄)61하고  
강산(江山)에 중류(中流)62일 듯 달을 이고 좋으니  
동창(東窓)에 비친 명월(明月) 우리 땅에 왔도다  
춘몽(春夢)이 되었구나 다시금 생각하니  
명명(明明)한 어제 일을 역력(歷歷)히 생각하니  
헛되도다 우리 봉우(朋友) 이리한번 흠어진 후  
후일(後日) 기약(期約) 어찌할고 가소롭다 여자의 몸  
각처로 흠어져 안면(顔面)이 적조(積阻)63하고  
척사(擲柶)64가 돈절(頓絕)65하니 춘하추동 사시절에  
미진한 회포 비승(飛昇)66하며 봉우생각 간절하기는  
사시중의 가절(佳節)이라  
형제생각 간절하고 모월지심(暮月之心)67 어찌하고  
슬프거나 기쁘거나 우리애연(哀然)68 낙루무수(落淚無數)할세  
악수(握手)연연(戀戀)69 하는 말이 다시금 생각하니  
저시절 좋은 때 부은잔 잡고와서  
이기회 잊지말고 춘풍호절(春風好節) 화전성회(花煎盛會)70  
호응명절(名節) 또다시 즐겨보세  
이만하고 그치노라

어와사념요

아아 따님들아 우리말좀 들어보소  
천지(天地)가 조판(肇判)1후 만물(萬物)이 생겼으니  
영귀(榮貴)2한 것 사람이라 남녀분간 달라서  
오행성기(五行盛氣)3 일반이요 부모의 깊은 자애(慈愛)  
남녀분간 다를손가 은사근사(隱事勤事)4 길러낼 때  
명문거족(名門巨族)5 좋은 가정 여자본분 교훈(教訓)하여  
삼오(三五)6의뜻 다 이르니 급여이나 면하기를



근심걱정 하는 몸이

천리윤(天理倫)7 부모동기(父母同氣) 멀찌감치 떨어져두고

고향산천 작별(作別)하고 여자로서 매인소임(所任)

까다로운 심지자리 옛말에도 있거니와

구이촌에 입촌(入村)8하여 규중심처(閨中深處)9 깊이앉아

우리 친가(親家) 법가윤풍(法家倫風)10 효칙(效則)11하여

봉구고(奉舅姑)12 사군자(事君子)13와

봉세구(奉歲久)14 적빈(赤貧)15하여 은분여의 큰일이라

공공이 조심하여 효우현심(孝友賢心)16 극진한중

우리각각 여자로서 타문(他門)17에 입승하매

많지만은 시집살이 어와동정 활발히

[각주]

- 1) 제류(儕流) : 동배(同輩)-나이나 신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사람.
- 2) 제족(諸族) : 한 집안의 모든 거래붙이.
- 3) 건곤(乾坤) : 천지, 음양.
- 4) 개벽(開闢) : 세상이 처음으로 열려 생김.
- 5) 조물주(造物主) :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 6) 삼강(三綱) :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 7) 건전(健全) : 사상, 조직, 정신 등이 건실하고 온전함.
- 8) 선정헌정(先正憲政) : 선대(先代)의 현인(賢人)과 정치제도.
- 9) 보국치국(報國治國) : 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라를 다스림.
- 10) 요조숙녀(窈窕淑女) : 말과 행동에 품위가 있으며 양전하고 정숙한 여자.
- 11) 범백(凡百) : 일상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은 언행.
- 12) 삼종지도(三從之道) :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였음.
- 13) 가소가탄(可笑可歎) : 가히 우습기도 하고 탄식할 만함.
- 14)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 15) 규중심처(閨中深處)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16) 우편전표(郵便傳票) : 편지나 조이 쪽지.
- 17) 통기(通寄) : 통지(通知)-기별하여 알림.
- 18) 상원가절(上元佳節) : 음력 정월 보름께의 좋은 계절.
- 19) 해락담소(偕樂談笑) : 여럿이 함께 즐겁게 나누는 이야기.
- 20) 구고(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21) 홍안(紅顏) : 붉은 얼굴, 젊어서 혈색이 좋음.
- 22) 무이향산(無二鄉山) : 오직 하나뿐인 고향 산천.
- 23) 환형(環形) : 고리처럼 둥근 모양. 환상(環狀).
- 24) 당숙종반(堂叔宗班) : 오촌으로부터 모든 일가와 거래붙이.
- 25) 희희낙락(喜喜樂樂) :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
- 26) 동기(同氣) : 형제와 자매.
- 27) 일당(一堂) : 한 집, 한 곳.
- 28) 회소담화(會所談話) : 여럿이 모여 즐겁게 나누는 이야기.
- 29) 해화(諧和) : 조화, 잘 어울림.
- 30) 호절(好節) : 좋은 시절.
- 31) 기망(既望) : 음력 열셋새 날 밤.
- 32) 이태백(李太白) : 중국 당나라의 시인, 시선(詩仙), 자는 태백, 호는 청련거사(淸漣居士)
- 33) 상원가절(上元佳節) : 음력 정월 보름 날 즈음.
- 34) 악양루(岳陽樓) : 중국 호남성 악양현 서남쪽에 있는 누각.
- 35) 번뇌(煩惱) :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움.
- 36) 정실 : 운포라는 마을의 정씨 성을 가진 남자의 부인.

- 37) 김실 : 미동이라는 마을의 김씨 성을 가진 남자의 부인.
- 38) 의질(疑質) : 의심하여 물어 봄.
- 39) 소격(疏隔) : 왕래가 없어 서로 사귀던 사이가 멀어짐.
- 40) 지화(指話) : 손가락을 이용해 하는 이야기, 수화(手話)
- 41) 노소장유(老少長幼) : 늙은이와 젊은이, 노인과 어린이.
- 42) 훌훌(忽忽) : 문득 갑작스럽게.
- 43) 소밥 : 소반(素飯)-고기나 생선 따위의 반찬이 없는 밥.
- 44) 명찰기암(名刹奇庵) : 이름난 사찰과 기이한 암자.
- 45) 보살할매 : 불교에서 나이든 여자 신도를 일컬음.
- 46) 기포(飢飽) : 굶주림과 배부름.
- 47) 주궤(主饋) : 안살림에서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여자.
- 48) 유식(遊食)주전 :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음식만 먹고 노는 모양.
- 49) 개벽(開闢) : 처음으로 생겨 열림.
- 50) 풍비(豐備) : 풍부하게 갖추.
- 51) 금낭(錦囊) :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 52) 치장(治裝) : 행장을 차림.
- 53) 당홍(唐紅) : 자줏빛을 띤 붉은 물감.
- 54) 배알(拜謁) :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뵈는 일.
- 55) 편웃 : 편을 갈라 이기고 짐을 거루는 윷놀이.
- 56) 윷말 : 윷놀이를 할 때 윷판에 쓰는 말.
- 57) 당황(唐慌) :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58) 장방(長房) : 너비보다 길이가 드러나게 긴 큰 방.
- 59) 풍정(風情) : 정서나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
- 60) 연화(煙花) : 봄 경치.
- 61) 애애(靄靄) : 부드럽고 포근한 분위기.
- 62) 중류(中流) : 강이나 내의 중간 부분.
- 63) 적조(積阻) :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소식이 막힘.
- 64) 척사(擲柶) : 윷놀이.
- 65) 둔절(頓絕) : 소식이나 편지 따위가 딱 끊어짐. 두절(杜絕)
- 66) 비승(飛昇) : 하늘로 날아 올라감.
- 67) 모월지심(暮月之心) : 저녁 무렵 달을 보고 생긴 심회.
- 68) 애연(哀然) : 슬픈 기분을 자아내는 것 같은 느낌.
- 69) 연연(戀戀) : 미련이 남아서 잊지 못함.
- 70) 화전성회(花煎盛會) : 화전을 먹으면서 갖는 성대한 모임.
- 1) 천지조판(天地肇判) : 하늘과 땅이 처음 쪼개어 갈라짐.
- 2) 영귀(榮貴) : 지체가 높고 귀함.
- 3) 오행성기(五行盛氣) : 오행의 왕성한 기운.
- 4) 은사근사(隱事勤事) :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드러나지 않게 힘을 씀.

- 5) 명문거족(名門巨族) : 이름나고 크게 번창한 가문.
- 6) 삼오(三五) : 삼강과 오륜.
- 7) 천리윤(天理倫) :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 8) 입촌(入村) : 마을로 들어 섬.
- 9) 규중심처(閨中深處) : 예전에 부녀자가 거처했던 깊은 곳.
- 10) 법가윤풍(法家倫風) : 예법을 중시 여기는 집안의 윤리 가풍.
- 11) 효칙(效則) : 가르침이나 본을 받음.
- 12) 구고(舅姑) : 시부모를 봉양함.
- 13) 사군자(事君子) : 군자를 섬김.
- 14) 세구(歲久) : 여러 해가 지남.
- 15) 적빈(赤貧) : 몹시 가난함.
- 16) 효우현심(孝友賢心) : 효도하고 우애하는 어진 심성.
- 17) 타문(他門) : 다른 집안 또는 문중.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